

종말

빛과 생명 교회(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조동호 목사

1. 종말과 함께 쓰이는 용어들

그리스도교(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란 말은 ‘구원’이란 말과 동일한 개념이다. 종말과 구원은 모두 ‘장차 올 더 좋은 것’ (better things to come) 곧 참된 것(the true), 하늘의 것(the heavenly), 영원한 것(the eternal)을 말한다. 또 종말과 구원은 “위로부터” (from above, 눅 24:49, 요 3:31, 약 1:17, 3:15, 17) 혹은 “하늘로부터” (from heaven, 마 3:17, 16:1, 막 1:11, 8:11, 11:30, 눅 3:22, 11:16, 20:4, 요 3:31, 6:32) 오는 “더 좋은 것” (much better, something better, much more, 히 6:9, 11:40, 롬 5:9-10, 15)을 말한다.

그리스도교(신약성경)의 종말은 시한부 종말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종말을 말할 때 단순히 미래에 성취될 일들의 약속이나 희망만을 말하지 않고, 이미 이뤄진 것, 아직 이뤄져가고 있는 성취, 다가올 최후승리에 대한 희망 등을 함께 말한다.

회개와 구원, 현재와 미래, 개인과 우주, ‘이미’와 ‘아직,’ 환난과 재앙, 구원과 심판, 천년기간(무천년, 후천년, 역사적 전천년, 시대구분 전천년) 등이 모두 종말과 관련된 용어들이다. 구원이 종말적이고 궁극적인 것이기는 한데 그리스도교에서는 현재구원(종말)과 미래구원(종말)을 동시에 말한다. 현재구원이란 영혼구원 혹은 영적부활을 말하는데 신학에서는 이것이 ‘의롭다하심’ (justification) 혹은 ‘칭의’로 불린다. 그런데 칭의는 그 자체가 완성을 말하기보다는 성령님에 의한 성화의 시작(초기성화, 거듭남, 중생) 혹은 기업(유업, inheritance)의 약속(“약속의 땅” 히 11:9, “약속의 언약” 엡 2:12)을 말하고, 약속의 성취를 위한 성령님의 보증(deposit, guaranteeing what is to come. 고후 1:22, 5:5, 엡 1:14)과 맛봄(선취, anticipation)을 의미한다. 반면에 미래구원은 주의 재림과 동시에 성취될 육체부활과 약속의 기업(유업,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와 영생을 말한다. 따라서 회개와 구원, 현재와 미래, 개인과 우주, ‘이미’와 ‘아직,’ 환난과 구원, 재앙과 심판, 천년기간 등이 모두 이 구원 혹은 종말에 관련된 용어들이다.

천년설에는 ‘무천년설’ (amillennialism), ‘후천년설’ (postmillennialism), ‘전천년설’ (premillennialism) 등이 있다. ‘무천년설’은 현재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천상의 낙원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영적으로 천년왕국이란 주장이다. ‘후천년설’은 현 세상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영적으로 천년왕국이란 주장이다. 후천년설은 사도행전에서처럼 선교(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 곧 천년왕국이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완성된 시점 곧 천년왕국인 의와 평화의 긴 시기 말에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주장이다.¹⁾ 반면에 ‘전천년설’은 주의 재림

1) Loraine Boettner, "Postmillennialism," *The Meaning of the Millennium: Four Views*, ed.

이 있고난 후에 문자적으로 대이변(catastrophe)과 함께 갑자기 천년왕국이 개방될 것이라는 염세적 주장이다. ‘전천년설’은 칠년대환란을 주장하는 ‘역사적 전천년설’(historical premillennialism)과 칠년대환란(great tribulation)을 주장할 뿐 아니라, 칠년대환란 직전의 비밀휴거(그리스도의 공중재림)와 칠년대환란 직후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을 주장하는 ‘시대구분 전천년설’(세대주의, dispensationalism)로 나뉜다.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이 성경의 예언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반면에 전천년설은 성경의 예언을 대체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한다. 특히 시대구분 전천년설은 유대교인들이 그러하듯이 구약성경의 예언을 100퍼센트 문자적으로 이해하며, ‘예슈아를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Messianic Jews)의 주장에 맞닿아있다.

종말과 함께 쓰이는 용어들 가운데 묵시라는 말이 있다. ‘종말’은 끝(end)이라는 말에서 왔고,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말한다. 반면에 ‘묵시’는 종말의 시간 속에서 나타나는 선과 악에 관한 혹은 구원과 심판에 관한 여러 가지 환상과 상징적 현상들을 말한다. 따라서 종말은 시간의 문제이고, 묵시는 종말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의 문제이다.²⁾

그리스도인들의 주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재림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환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과 인내를 강조하는 신약성경의 가르침, 특히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준향전과 매우 비슷해서 묵시문학적 성격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신약성경의 더 큰 주제는 현재종말론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말씀들의 이해에 따라서 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무천년설이 가능해진다. 반면에 시대구분(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성경해석에 있어서 유대교적이고 자의적인 면이 지나치다.

현재종말론이란 종말이 주후 30년 5월 28일 오순절 날 성령의 오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이미’ 지상의 교회 안에서 출범했다는 가르침이다. 이를 다른 말로 ‘시작된 종말’(inaugurated eschatology) 혹은 ‘실현된 종말’(realized eschatology)이라고 부른다. 신약성경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미래종말(futuristic eschatology)을 여전히 희망한다는 점에서 묵시문학사상에 한발을 걸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전통적인 묵시문학사상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 또는 하나님의 승리가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적 삶속에서 이미 영적으로 성취된 사실을 강조하면서 종말은 이미 그리스도인의 삶속에 현존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임을 선언할 수 있으며, 환란과 핍박을 막연히 견디거나 종말의 축복을 막연히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 속에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기업)의 성취를 미리 맛보고 누리며 바랄 수 있다고 하였다.

묵시문학이란 주전 2세기에서 주후 1세기말 사이에 형성된 문학형태를 띤 글로써 구약성경(드물게 외경과 위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들을 성찰하고 해석하여 종말의 시간들 속에서 드러날 선과 악에 따른 구원과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시대경륜 곧

Robert G. Clouse(Downers Grove, 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77), 117.
2) 전경연 외 3인, <신약성서 개론>(대한기독교서회, 1971), 340-342.

다가올 최후승리와 최후심판을 여러 환상들과 상징들로 설명하면서 한편으로는 희망과 격려와 위로와 인내를 권면하고, 다른 편으로는 재앙(저주)과 심판을 경고하는 성격의 글을 말한다. 묵시문학은 최후승리와 최후심판을 말한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계시적 예언적 성격이 있지만, 문학적 성격을 띠는 점이 큰 특징이다.

‘계시’와 ‘묵시’는 헬라어로 동일하게 ‘아포칼립시스’ (apocalypse)라 쓴다. 그 뜻은 ‘베일을 벗긴다,’ ‘숨은 것을 드러낸다,’ ‘비밀이었던 것이 밝혀진다,’ 또는 ‘숨겨진 사건이 폭로 된다’이다. 하지만 계시는 묵시와 크게 다르다. 계시(revelation)는 초월자 하나님의 현현(顯現)을 의미하지만, 묵시(apocalypse)는 하나님의 시대정신을 밝히는 문학적 성격을 띤다. 하나님의 현현(顯現)이란 신(神)의 변신(變身, theophany)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은 다양한 변신과 사건으로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계시의 모습은 변신한 모습인데, 하나님의 참 모습,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인간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모습이다. 만물을 존재케 한 창조사건이 일반계시라면, 출애굽사건과 십자가사건과 같은 구원사건이 특별계시이다. 구름기둥, 불기둥, 불붙는 떨기나무, 예수님의 부활사건, 성령님의 능력 등도 계시 또는 계시적 사건들이다. 하나님의 대언자들의 예언과 성문(成文)도 특별계시에 해당된다. 참고로 ‘영감’ (inspiration)은 계시를 받은 자들이 그 계시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설명하며 기록하도록 돕는 성령님의 활동을 말한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인 주전 8세기경에 쓰인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그리고 주전 7세기경에 쓰인 <신통기>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그리스신화를 빌리면 계시가 무엇인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올림포스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는 난봉꾼으로서 여신들뿐 아니라, 인간의 딸들까지 수시(隨時)로 넘보곤 했다. 번개였던 제우스가 자신의 본모습으로 인간에게 나타날 경우, 피조물인 인간은 새까맣게 타죽고 만다. 그래서 백조나 황소나 건장한 청년으로 변신해서 인간 세상에 나타나 알크메네와 세멜레, 에우로페와 같은 인간 여성들을 꼬드겨서 임신을 시키곤 했는데, 그 여성들이 낳은 아들들이 헤라클레스와 디오니소스와 미노스였다. 디오니소스를 임신한 세멜레는 유모로 변신해서 인간 세상에 나타난 제우스의 부인 헤라에게 속아서 제우스에게 스틱스강에 맹세케 하고 본모습을 보여줄 것을 간청한다. 죽음의 세계인 음부 한가운데를 흐르는 증오의 강인 스틱스강에 대고 맹세하면, 제우스라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어서 제우스는 세멜레 앞에 번개로 나타나게 되고, 세멜레는 디오니소스를 임신한 채로 새까맣게 타죽고 만다. 제우스는 5개월밖에 안된 디오니소스를 세멜레한테서 끄집어내어 자신의 허벅지 속에 숨겨 남은 5개월을 채워 출산시키고 있다.

그리스신화에서 보듯이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여러 형태의 변신한 모습으로 인간들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셨다. 계시는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준 것이므로 빛과 같아서 그 밝기가 시대마다 다르고 점진적이었다. 계시에 일반계시(자연계시, 보편계시)와 특별계시가 있듯이, 특별계시에도 달빛계시가 있고, 햇빛계시가 있다. 구약성경이 달빛계시라고 가정한다면, 신약성경은 햇빛계시이다. 또 모

세와 율법이 달빛계시라고 가정한다면, 예수님과 복음은 햇빛계시이다. 또 구름기둥이 달빛계시라고 가정한다면, 성령님은 햇빛계시이다. 달은 별이 아니지만, 해는 가장 빛나는 별이다. 달빛이 햇빛의 반사 빛이듯이, 구약성경은,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볼 때, 신약성경의 빛을 통해서 비로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 햇빛이 달빛의 밝기를 결정짓듯이 신약성경이 구약성경의 계시의 밝기를 결정짓는다.

‘예언’ (Prophecy)은 계시에 속한다. ‘계시’ (Revelation)는 초월자 하나님의 현현(顯現)을 의미하지만, 예언은 하나님의 민족정률훈에 속한다. 반면에 묵시는 하나님의 시대정률훈에 속한다. 예언과 묵시는 하나님의 뜻을 민중에게 전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예언이 민중의 기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반면, 묵시는 세상에서 좌절한 민중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또 예언과 묵시는 박해나 배교의 위기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같고, 점차적으로 전 세계, 전 역사의 운명을 논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예언이 주로 회개와 사회개조를 부르짖는 반면, 묵시는 우주의 개조와 천상의 비밀을 공개한다. 또 예언자나 묵시록 저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신의 영감 곧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를 경험한 자들이지만, 예언자들이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자들인 반면, 묵시록의 저자들은 주로 하나님의 환상을 눈으로 보는 자들이었다. 또 예언자들은 시내산 언약(율법, Torah)의 내용을 성찰한 해석자들이었던 반면, 묵시록의 저자들은 구약성경(드물게 외경과 위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들을 성찰한 해석자들이었다. 또 예언은 단편적인 글인데 반해서 묵시록은 종말의 시간들 속에서 드러날 하나님의 시대정률훈 곧 다가올 최후승리와 최후심판을 여러 환상들과 상징들로 설명하면서 한편으로는 희망과 격려와 위로와 믿음과 인내를 권면하고, 다른 편으로는 무시무시한 재앙(저주)과 심판을 경고하는 문학적 성격의 글이다. 또 예언은 그 목표가 국민생활 전체에 관한 것이 많은 데 반해서 묵시록은 개인의 신앙생활 곧 신앙으로 인한 환난과 배교 등이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예언은 언제나 현재적인 상황에서 각 시대의 요청에 따랐고, 묵시록은 역사성을 무시한 채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제시하였다. 또 예언의 시기는 주로 바벨론유배전후시대인 주전 7-5세기였으나, 묵시록의 시기는 주전 2세기에서 주후 1세기말까지였다. 또 예언은 저자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대개의 묵시록은 가명으로 되어 있다. 가명을 쓴 이유는 문헌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함이었거나, 박해 때문이었을 것이다.³⁾

2. 유대교(구약에서)의 종말론

‘구원’에 관한 글에서 유대교(구약에서)의 종말론을 간략히 전술한바가 있다. 그 내용을 여기서 좀 더 자세히 기술해보고자 한다.

유대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리스도교가 신조(신앙고백)의 종교라면, 유대교는 계명들(토라)을 실천하는 종교이다. 따라서 두 종교의 믿음의 의미도 많이 다르다. 유대인 학자 마르틴 부버(Martin Buber, 1878-1965)는 <두 형태의 신앙>(The Two Types of Faith)이란 책에서 믿음은 “행하거나 혹은 행

3) 김철손, <요한 계시록 신학>(대한기독교서회, 1989), 23-28.

하고 듣는 것에 적용되지(출 24:3, 7), 의미상으로 ‘믿거나’ 혹은 신조(creed)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⁴⁾고 하였고, “유대인의 믿음(emunah)의 기원은 국가역사에 있고, 그리스도인의 믿음(pistis)의 역사는 개인역사에 있다.”⁵⁾고 하였으며, “유대교의 믿음과 그리스도교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그 종류가 다르다”⁶⁾고 하였다.

유대교인들은 성경에 언급된 최초의 믿음을 창세기 15장 6절,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에서 찾는다. 여기서 “믿으니”는 히브리어로 ‘에무나’(emunah, 믿음)인데, ‘에무나’는 누군가를 믿거나 신뢰하는(believe in)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믿거나 그것이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믿는(believe that) 것을 말한다. ‘에무나’는 신뢰(trustiness)보다는 신실함(faithfulness) 혹은 충실함(loyalty)에 더 가깝다고 말한다. 또 ‘에무나’는 ‘아만’(aman, 확고한, 영구적인)에서 온 말인데, ‘아멘’(Amen, 확실히 그렇게 될 것이다)에 연결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미래에 이뤄질 일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다.⁷⁾ 위키피디아(Wikipedia)도 ‘에무나’를 정의하기를, 그리스도교에서처럼 수동적으로 주체 곧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믿는 믿음(faith in God)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행위 지향적인 믿음이라고 하였다.⁸⁾ 따라서 유대교의 믿음은 신조(신앙고백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토라에 대한 충성심 또는 충성스런 행위를 말한다.⁹⁾

유대교인들에게는 영혼구원사상이 없다. 이 영혼구원사상은 현재구원 혹은 실현된 종말(realized eschatology)로써 미래구원 혹은 미래종말(futuristic eschatology)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땅의 삶 속에서 약속받고, 인침(확증)받아, 미리 맛보고, 미리 누리는 축복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사상이다. 유대인들에게는 미래종말만 있는데, 그리스도교에서 고대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사상 곧 미래종말과 유사하다. 이것은 육체구원, 이스라엘 민족구원, 이스라엘나라 회복사상으로써 이스라엘의 멸망이후 아직 이뤄진 일이 없는 미래구원을 말한다. 이것을 성공적으로 성취시키고 살아남은 자가 메시아인데, 예수는 이것의 성취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거짓메시아라는 것이 대다수 유대인들의 생각이다. 게다가 유대교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들로써의 하나님이나 인격신으로서의 성령님을 믿지 않는다. 그런데 그리스도교가 실현된 종말(구원)을 주장한다고 해서 미래종말(구원)이 없지 않듯이, 유대교가 미래종말(구원)을 주장한다고 해서 현재구원 혹은 실현된 종말이 전혀 없지 않다는 것이 마르틴 부버(Martin Buber, 1878-1965)와 윌 헤르베르그(Will Herberg, 1901-1977)와 같은 유대인 학자들의 주장이다.¹⁰⁾

4) Martin Buber, *The Two Types of Faith*, Norman P. Goldhawk, trans.(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51), 35.

5) Martin Buber, *The Two Types of Faith*, 170.

6) Martin Buber, *The Two Types of Faith*, 173. “The faith of Judaism and the faith of Christendom are by nature different in kind.”

7) John J. Parsons, “Emunah - Believing in / Believing that,” <https://www.hebrew4christians.com/Articles/Emunah/emunah.html>.

8) <https://en.wikipedia.org/wiki/Emunah>.

9) <https://www.myjewishlearning.com/article/emunah-biblical-faith>.

유대교의 종말론이 주로 지상(地上)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그리스도교의 종말론은 지상과 천상(天上) 모두에서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 제2모세(메시아)가 와서 세울 ‘다가올 세상’ (Olam Ha-Ba)을 ‘희망’ (Ha-Tikvah)하며, 그 때까지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무엇이 참 이스라엘인지, 누가 참 이스라엘인지를 묻고서, 유대민족혈통이 참 이스라엘이고, 토라를 철저히 준수하는 유대교신앙을 간직한 공동체가 참 이스라엘이며, 비록 지금 이스라엘은 망해서 제국들의 속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유대민족혈통과 유대교신앙이 지속되는 한 이스라엘은 결코 멸망한 것이 아니고, 유대민족혈통이 보존되는 한 참 이스라엘은 살아남을 것이며, 토라를 철저히 준수하는 유대교신앙이 유지되는 한 참 이스라엘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해답을 제시했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를 쓴 엘리트들의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또 유대교인들이 이 같은 역대기사관을 가지고 미래종말에 주어질 ‘그 희망’을 현재의 삶 속으로 앞당겨 맛보고 체험하며 현실화시키고자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유대교에도 일정부분 실현된 종말론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이 “메시아는 이미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교회를 실현된 메시아의 나라로 확신하는 영적구원 또는 현재구원과 같은 현재종말론이 유대교에는 거의 없다. 유대교인들은 “메시아가 오고 계시다” (Moshiach is coming)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유대교인들은 ‘메시아’ (Messiah)란 호칭이 그리스도교에 의해서 왜곡되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대신에 ‘모쉬아크’ (Moshiach)란 호칭을 사용한다. 유대교인들은 ‘모쉬아크’가 곧 오실 것이고, 오고 계시며(Moshiach is coming!),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한다.

유대교인들의 ‘말세’ 또는 ‘종말’에 관한 생각은 시기별로 세 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첫째는 구약성경이 문자적인 글이기 때문에 ‘말세’나 ‘주의 날’은 나라가 멸망하여 바벨론에 유배를 당한 것과 같은 위기가 닥치는 때를 말하였다. ‘말세’나 ‘주의 날’은 이스라엘 국가나 이웃 나라들의 멸망과 개인의 육체적 물질적 심적 정신적 고통의 때를 말하지만, 우주의 종말을 말한 것은 아니다. 보통 예언자들이 ‘말세’나 ‘주의 날’을 외친 때는 위기의 때로써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 곧 나라가 망하는 마지막 때에 직면하게 된다는 뜻이었다. 둘째는 바벨론 유배 이후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과 명예회복과 관련해서 제2모세를 기대하고 선포하였는데, 그가 메시아이다. 메시아가 오시는 때가 ‘말세’ 곧 ‘마지막 때’인데, 이는 2천 6백년도 더 된 오랜 ‘그 희망’ (Ha-Tikvah)이 성취되는 때를 말한다. 유대교인들은 지금이 바로 말세라고 말하고 있는데, “모쉬아크가 오고 계시다”고 믿기 때문이다. ‘모쉬아크’는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교의 전유물이 되어버린 ‘메시아’와 차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다. 유대교의 메시아에 관한 희망이 그리스도교의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10) Martin Buber, "Der Preis," *Der Jude*, October 1917; Will Herberg, ed., *The Writings of Martin Buber*(Cleveland and New York: Meridian Books, 1956), 31.

유대교인들에게는 영적구원(현재구원, 현재종말)이 없고, 육적구원(미래구원, 미래종말)만 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구원과 재림 때에 육적구원의 완성이 이뤄질 것을 말하는데, 부버와 헤르베르그는 출애굽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大)구원이 이뤄졌고, 제2의 출애굽사건을 주도할 메시아(Moshiach)가 오심으로 그 구원이 완성된다고 본 것이다. 그리스도교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이미 실현된 구원의 확신, 곧 종말에 주어질 축복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약속받고, 보증과 인침을 받아 미리 맛보고 누리는 영적인 축복이 있는 반면, 유대교에는 그것이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already)와 ‘아직’ (not yet)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데, 유대교인의 ‘이미’는 2600(586 BC)여 년 전에 실패로 끝났으므로 그 실패를 만회하거나 보다 큰 축복이 주어질 미래만 희망(Ha-Tikvah)하고 사는 것이다. 이점이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와 또 한 가지 다른 점이다. 다만 그리스도교나 유대교가 모두 미래구원(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강하게 믿고 희망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이미’란 것은 메시아가 가져오실 하나님의 왕국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영적으로 이미 이루어졌다는 말이고, ‘아직’이라는 말은 완성될 하나님의 왕국이 문자적으로 아직 소망 가운데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이며,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종말에 주어질 축복된 삶을 맛보고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 복된 삶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침례 가운데서 선행을 위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이며, 성령님을 통해서 보증되고 인(印)쳐지고 맛보아지는 삶이다.

히브리서 2장 5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에서 “장차 올 세상”은 히브리어로 ‘올람 하바’ (Olam Ha-Ba)이고, ‘올람 하바’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희망해온 “장차 올 세상”이다. 비록 ‘올람 하바’가 히브리어성경에 쓰인 용어는 아니지만, 바벨론 유배 이후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마음 속 깊이 희망해온 메시아시대를 말한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희망’을 ‘하티크바’ (Ha-Tikvah)라 부른다. 그리고 ‘하티크바’는 이스라엘의 애국가로 자리를 잡았다. 가사는 다음과 같다. “유대인의 정신이 마음 속 깊이 갈망하고 있는 한, 눈을 동쪽으로 향하여 시온을 바라보는 한, 우리의 희망은 아직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이천년을 간직한 우리의 희망은 우리 자신의 땅에서 자유민이 되는 것, 시온과 예루살렘의 땅에서!”

유대인들의 ‘그 희망’ (Ha-Tikvah)은 아브라함에게서 처음 시작되었다. 떠돌이와 노예였던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가나안땅과 나라에 대한 ‘그 희망’을 아브라함이 처음 품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처음 품었던 가나안땅과 나라에 대한 ‘그 희망’을 마음 속 깊이 갈망하는 자라야 유대인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유대교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바로 이 ‘그 희망’에 대한 충성심(loyalty) 혹은 신실함(faithfulness)이고, ‘그 희망’이 성취되는 시점이 ‘올람 하바’ 곧 ‘다가올 세상’이며, 아브라함이 그들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이

유이다. 그리고 75세 때 무자식이었던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국가를 세울 가나안땅을 희망한 이후 그 첫 번째 희망을 가시적으로 성공시킨 인물이 모세였다. 그리고 그 희망이 절정에 달했던 나라가 다윗왕국이었다. 그래서 모세와 다윗이 메시아의 표상이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죽고 왕국은 북과 남으로 쪼개졌으며, 북이스라엘 왕국은 200여년 만인 주전 722년에 멸망하였고, 남유다왕국은 340여년 만인 주전 586년에 멸망하였다. 출애굽 후 가나안땅에 나라를 세운지 860여년 만에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 원점이 이집트에서 바빌로니아로 바뀔 뿐이었다. 이때로부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나이 많고 늙은 무자식 상태에서 처음 품었던 그 희망, 곧 성취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했던 그 희망을 다시 품기 시작하였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 절망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 깊은 흑암의 상태, 무질서가 최고조에 달한 상태에서 희망을 품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희망은 아브라함의 희망이 430(혹은 645)년 만에 성취되었듯이, 유대인들의 희망은 580여년 만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이 복음서들이 선포한 메시지이다.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그토록 오래 묵은 그 희망의 시작임을 선포하였는데, 이것이 약속된 혹은 예언된 종말의 시작이었다. 그 종말을 그리스도교는 현재종말 또는 실현된 종말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대다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빼앗긴 가나안땅과 문자적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과 명예를 오롯이 되찾아 주기 위한, 곧 유대인을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

유대교인들이 생각하고 믿는 ‘올람 하바’ (Olam Ha-Ba)는 장차 예루살렘 시온성에 세워질 신정국가를 말한다. 유대교인들은 이 때 흩여졌던 모든 유대인들이 본향에 돌아오게 되고, 토라(Torah)와 성전중심의 유대교예배가 재건되며,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던 안식을 얻게 된다고 믿는다. 이 시기가 종말시대인 것이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인들의 ‘그 희망’을 그리스도교의 독특한 희망으로 재해석한다. 그리스도교 이해의 핵심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실체와 그림자,’ 혹은 ‘원형과 모형’으로 명확하게 구분 짓는 것이다. 유대교인들이 바라는 ‘그 희망’의 내용들은 땅의 것이고, 유한한 것이며, 일시적인 것이고, 장차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와 모형에 불과한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은 하늘의 것이고, 무한한 것이며, 영원한 것이고, 장차올 좋은 것들의 실체와 원형이다. 이 땅에는 우리가 찾는 진정한 안식이 없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쟁취해야 할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신약성경의 가르침이다. 따라서 신약성경은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것을 바라볼 것인가, 유한한 것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무한한 것을 추구할 것인가, 일시적인 것에 착념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에 착념할 것인가, 그림자

와 모형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실체와 원형을 쫓을 것인가를 바르게 생각하고 선택할 것을 힘줘서 권면한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유대교인들은 자신들의 ‘그 희망’을 이를 그리스도를 ‘메시아’라 부르지 않고 ‘모쉬아크’(Moshiach)라 부른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유대교인들의 메시아관을 왜곡시켰다고 믿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주전 586년경부터 모세의 재림을 희망하여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다. ‘그 희망’이 비관적일수록 전천년설적이었고, 혁명을 꾀하는 자들 중에서 자칭 ‘재림 모세’ 곧 메시아가 출현하곤 했었다. 페르시아시대의 인물들 가운데에는 스룹바벨(슥 4장)과 에스라(라 7장)가 일정부분 재림 모세로 간주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신구약중간기인 헬라시대에는 유다 마카비(Judas Maccabeus, 마카베오상 3장)가 강력한 재림 모세로 간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유다 마카비는 헬라로부터 유대인을 해방시켜 하스몬왕가가 세워지는데 공헌하였고, 주전 64년 로마에 멸망하기까지 100년간 주권을 지속시킨 영웅이자 혁명가로서 재림 모세에 준하는 인물이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30여명의 거짓 메시아들이 출현했었다고 말한다. 그들 가운데 세레 요한, 예수님, 발 코크바, 사베타이 제비가 포함된다. 민중이 세레 요한을 보려고 광야에 나간 것은 그가 재림 모세인가를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헤롯 안티파스도 요한에게 관심을 보였고, 두려운 나머지 살해하였다. 이라크 남부와 이란 남서부에는 수천 명의 만다야교(Mandaeism)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지금도 세레 요한을 재림 모세로 믿고 있다. 복음서들에서는 예수님이 자기가 오실 자로 예언된 재림 모세 곧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신 시점을 세레 요한이 사망한 직후로 적고 있는데, 그 이유가 민중의 일부가 세레 요한을 재림 모세로 믿었기 때문이다.

발 코크바(Bar Kochba, 별의 아들)로 불린 코시바의 아들 시몬(Simon ben Kosiba)은 뛰어난 혁명가였다. 그는 주후 132-135년 사이에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하여 이스라엘의 주권을 선포했고, 그 증거로 그가 찍어낸 주화들도 여러 종류 남아 있다. 그러나 그는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로마제국에 무너짐으로써 유대인들에게 1,800년이 넘게 시련과 실망(Kozebe)을 안긴 인물이었다.

터키 서머나 출생의 유대인 샤베타이 제비(Shabbetai Zevi)는 1665년 5월 31일에 자신이 진정한 메시아 곧 재림 모세라고 선포한 인물이었다. 그의 주장은 수세기에 걸친 박해와 추방으로 고립무원에서 고군분투하던 온 세계의 유대인들을 일시에 흥분시켰고, 일찍이 그 누구도 얻지 못했던 대중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제비는 1666년 1월 이스탄불에서 반역죄로 체포되어 투옥되었다가 이슬람교로 전향하여 황실연금을 받았으며 충성스런 무슬림으로서 살다가 1676년 9월 17일 사망하였다.

유대교인들은 재림 모세의 강림에 대한 기대를 제2모세를 예언한 신명기 18장 15-18절, 새 율법과 새 언약시대를 예언한 예레미야 31장 31-33절, 새 성전시대를 예언한 에스겔 37장 25-28절,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를 예언한 이사야 65장 17-18절에서 찾는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유대교인들의 기대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교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다고 믿는다.

일반적으로 모쉬아크는 세상이 죄로 넘쳐서 그를 가장 필요로 하는 때(전천년설)나 세상이 심히 좋아져서 가장 합당한 때로 여겨지는 시기(후천년설)에 오시게 될 것이라고 믿어진다. 모쉬아크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킴으로써 정치적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며, 이스라엘에 한 정부를 세울 것이고, 그것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전 세계 정부의 중심에 세울 것이며, 성전을 재건할 것이고, 성전예배를 다시 세울 것이며, 이스라엘의 종교법정 체계를 회복시킬 것이고, 나라 법으로써 유대교법을 세울 것이라고 믿는다. 이때의 세계를 유대 묵시문학에서 ‘올람 하바’ (Olam Ha-Ba) 곧 다가올 세계라 부른다. 올람 하바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계이며(사 2:4),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이 유배되었던 나라들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며(사 11:11-12, 렘 23:8, 30:3, 호 3:4-5), 회년법이 다시 효력을 갖게 되고, 전 세계가 유대인의 하나님을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유대교를 유일하고 참된 종교로 인정하게 될 세계라는 것이다(사 2:3; 11:10; 미가 4:2-3; 스 14:9). 이 세계에서는 살인, 약탈, 경쟁과 질투는 사라질 것이고, 죄도 없어질 것이다(슥 3:13). 희생제물은 성전에서 계속 드려질 것이나 제물들은 감사예물에 국한될 것이라고 믿는다. 더 이상 속죄를 위한 제물이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이 종말세계를 유대교인들은 ‘간 에덴’ (Gan Eden)이라고 부른다.¹¹⁾

이상에서 보듯이, 유대민족에게는 출애굽사건에서 시작해서 모쉬아크 사건에서 완성되는 이스라엘 국가의 설립과 완성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다르다.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맺은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성도들이)가 성령의 능력가운데서 영적으로 시작되는 구원으로 출발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육적으로 완성되는 구원을 말하고 있다. 성령의 능력가운데서 영적으로 시작되는 구원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뤄지는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으로써 약속과 인침과 보증과 선취의 의미를 갖는다. 이것을 또한 ‘칭의’라 부른다. 약속과 인침과 보증과 선취란 그리스도의 재림 시(時)에 완성될 육적 구원, 곧 성도들의 육체부활과 우주의 회복인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은 마지막에 이뤄질 축복들을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약속받고, 인침(도장) 받고, 보증(선수금) 받고, 맛보고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이미’ 이뤄진 영혼구원과 ‘아직’ 이루지 못한 육체구원을 말한다. 그리고 영혼구원을 실현된 혹은 시작된 종말이라고 말하고, 육체구원을 주의 재림 때에 실현될 미래종말이라고 말한다.

구약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이란 개념이 없다. 구약성경에 자주 쓰인 ‘스올’ (sheol)은 죽음의 세계 곧 무덤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도가 불가능한 곳이다. ‘스올’에서는 기억하거나 찬송하거나 감사할 수 없고(사 38:18-19, 시 6:5, 30:9, 88:10-12, 115:17),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기” 때문이다(전 9:10). ‘스올’이 영혼들의 옥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은 구약성경에는 육체와 영으로 나뉘는 이원론이 없기 때문이다. 또 구약성경은 유대인들의 나라 곧 이스라엘과 가나안땅에 관한 문자적인 말씀이다. 따라서 영의 세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예수님 시대에 사두개파들이

11) <http://www.jewfaq.org/moshiach.htm>.

천국도 지옥도 영혼도 부활도 천사도 믿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페르시아제국시대 말까지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구약성경에 없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바리새파들은 천국과 지옥, 영혼과 부활 천사를 믿었는데, 이것은 신구약중간기였던 헬라시대의 영향 때문이었다. 후대에 이르러 랍비들은 ‘올람 하바’를 사후세계에 연결 짓기도 하지만, 교리를 믿거나 주장하는 종교가 아니라 토라(계명)를 그대로 실천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다가올 세상’에 대한 유대인들의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이 낙원과 천국 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갖는 견해만큼이나 다양하다. 유대교인들이 말하는 천국은 에덴동산(Gan Eden)¹²⁾인데 죽은 의인들이 부활하여 들어가며, 안식일에 경험할 수 있는 샬롬(평화)보다 60배나 더 복된 곳이라고 말한다. 지옥은 ‘게힌놈’ (Gehinnom, 힌놈의 골짜기)인데, 심판의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을 말하며, ‘게힌놈’의 불은 지상의 것보다 60배나 더 뜨겁다는 이야기가 후대에 첨가되었다. 다만 ‘게힌놈’은 가톨릭교회가 주장하는 연옥과 같아서 ‘다가올 세상’이 도래하기 전까지만 존재하며, ‘게힌놈’에서 머무는 기간도 최장 12개월로 한정된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부활하지 못하고 ‘다가올 세상’에 들어가지 못한다.¹³⁾ 힌놈의 골짜기는 히브어로 ‘게헨놈,’ ‘게힌놈,’ ‘게벤힌놈’으로 불렸고, 헬라어로는 ‘게헨나’ (Gehenna)로 불렸다(마 5:22, 막 9:47).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해 있고, 바알에게 분향하던 곳이었으며, 몰렉에게 어린자녀들을 산 채로 불살라 제물로 바치던 곳이었다(대하 28:1-4, 렘 7:31-33). 그러다가 요시아의 개혁 때부터(왕하 23:10) 이곳은 쓰레기와 동물과 죄인의 시체를 태우는 소각장으로 쓰였다. 24시간 불과 연기가 피어오르는 잿더미 골짜기였다. 그래서 힌놈의 골짜기는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의 상징이 되었다.

3. 그리스도교(신약성경)의 종말론

그리스도교(신약성경)의 종말론은 유대교의 미래종말론이나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시한부종말론과는 크게 다르다. 신약성경 종말론의 특징은 현재종말론이다. 현재종말론이란 종말이 주후 30년 5월 28일 오순절 날 오전기도시간에 성령님의 오심과 능력으로 ‘이미’ 지상의 교회(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출범했다는 가르침이다. 이를 다른 말로 시작된 종말(inaugurated eschatology) 혹은 실현된 종말(realized eschatology)이라고 부른다.

현재종말, 시작된 종말, 실현된 종말은 성경전서라는 큰 그림에서 볼 때 후천년설적(혹은 무천년설적)이다. 종말과 관련된 용어들, 곧 회개와 구원, 현재와 미래, 개인과 우주, ‘이미’와 ‘아직’ 등도 다분히 후천년설적이다. 그러나 성경전서에 담긴 일부 또는 특정한 구절들만 놓고 본다면 전천년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모쉬아크, 이스라엘, 유대인들에서 또 메시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서 모쉬아크나 메시아(그리스도)의 초능력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면 전천년설에 기울 것이고, 이스

12) 라비들은 ‘간 에덴’을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에덴동산과 다른 곳이라고 말한다.

13) <https://www.jewfaq.org/olamhaba.htm>.

라엘과 유대인들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미션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면 후천년설에 기울게 될 것이다. 또 미래구원 혹은 미래종말(futuristic eschatology)에 초점을 맞추면 전천년설에 기울 것이고, 현재구원 혹은 현재종말(시작된 종말 혹은 실현된 종말)에 초점을 맞추면 후천년설에 기울게 될 것이다.

“말세”란 메시아의 때, 곧 더 좋은 새 천년시대를 눈앞에 둔 시점이란 뜻이다. 히브리인들이 출애굽이후의 시대, 곧 우상숭배의 나라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를 건넌 후 시내산에서 옛 언약을 맺고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새 천년시대였듯이, 예수님과 사도들이 내다봤던 새 천년시대는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신앙(언약의 내용)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아 하늘 가나안땅의 시민이 되는 교회시대 또는 성령시대를 말한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특징을 마태복음 구조의 특징인 좌우대칭의 중심축인 13장에서 8개의 비유들로 설명하셨는데, 그 가운데 겨자씨비유와 누룩비유가 대표적이다.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는 다가올 세계를 향한 신실한 믿음(emunah, believe that)에, 역대기서들은 다가올 세계를 토라(율법)준수와 혈통유지에 충실함(emunah)으로써 점진적으로 확대시켜가는 낙관적인 후천년설에 기반 한다. 바울서신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다가올 세계를 그리스도를 믿음(pistis, believe in)으로 성령님의 보증과 인침과 능력과 선교(전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확대시켜가는 낙관적 후천년설에 기반 한다.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홍해를 건넌 것이 초기승리(종말의 시작)였고, 광야생활이 고난시대였으며, 요단강을 건넌 후 얻은 승리가 최후승리였다. 예수님의 사건에서 볼 때, 종려주일사건은 초기승리였고, 고난주간이 광야시대였으며, 부활주일이 최후승리였다. 교회의 관점에서 볼 때, 오순절 사건은 초기승리(종말의 시작)였고, 교회시대가 고난시대이며, 주의 재림이 종말의 완성이 된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볼 때, 침례(세례)가 초기승리이고, 교회생활(신앙생활)이 고난시대이며, 육체부활이 종말의 완성이 된다.

성경전서의 종말론은 큰 틀에서 후천년설적이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와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에서 보듯이, 그리스도교의 성공에는 강한 소명의식, 사명의식, 성령 충만, 끈질긴 기도, 인내의 믿음, 낙관적 후천년설이 있었다. 따라서 출애굽기, 여호수아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흑암과 혼돈과 무(無)에서 출발하여 각종 환난과 시련을 이기고 빛과 질서와 생명으로 점진적으로 성장 발전하여 완성에 이르는 후천년설적(postmillennial) 성공 스토리(success stories)이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사도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다. 그리스도교종말론의 특징은 ‘이미’와 ‘아직 아닌’에 있는데, ‘이미’는 실현된 종말론(realized eschatology)을 말하고, ‘아직 아닌’은 미래 종말론(futuristic eschatology)을 말한다. 그 둘 사이에 교회시대가 있다. 그것은 마치

홍해를 건넌 후 곧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받고 약속의 가나안땅에 이르기까지 40년 광야시대동안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은 것과 같아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고(롬 10:9) 회개하고 침례를 받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교회시대를 살다가 천국에 이르는 것과 같다.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성령님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영적구원 혹은 영혼부활이라 말하고, 궁극적인 구원을 육체구원 혹은 육체부활이라 말한다. 광야시대가 그랬듯이 교회시대는 환난(십자가를 지는)시대이기는 하나 구름기둥의 실체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것이기에 후천년설적인 것이다. 후천년설은 교회시대요 성령시대인 현시대 또는 현 세상을 천년왕국으로 보는 입장으로써 그 천년왕국이 원추형처럼 점진적으로 성취되어 주의 재림 때에 완성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1) 바울서신들에서의 현재종말

신구약전서의 이해에서 가장 핵심적인 테마가 가나안 땅이다. 땅은 오랜 종살이 또는 오랜 떠돌이(유배)를 끝내고 얻는 구원과 안식의 상징이자 종말의 축복 그 자체이다. 그 때문에 바울은 구원을 기업(하늘 가나안땅)과 동일시하였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해설한 구원론, 성령론, 종말론은 부분적으로는 묵시문학적이고, 예표와 모형은 히브리인들의 출애굽사건에 있다.

바울이 해설한 현재구원은 영혼구원 혹은 영적부활, 현재종말을 말하는데, 그는 이것을 ‘의롭다하심’(justification) 혹은 ‘칭의’라고 불렀다. 그런데 칭의는 그 자체가 완성을 말하기보다는 성령님에 의한 성화의 시작(초기성화, 거듭남, 중생) 혹은 기업(유업, inheritance)의 약속(“약속의 땅” 히 11:9, “약속의 언약” 엡 2:12)을 말하고, 약속의 성취를 위한 성령님의 보증(deposit, guaranteeing what is to come. 고후 1:22, 5:5, 엡 1:14)과 맛봄(선취, anticipation)을 의미한다. 반면에 미래구원은 주의 재림과 동시에 성취될 육체부활과 약속의 기업(유업,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와 영생을 말한다.

바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다가올 미래종말을 여전히 희망한다는 점에서 묵시문학사상에 한발을 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미’ 이뤄진 현재종말이 미래종말을 기대하는 희망의 근원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묵시문학사상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니었다. 바울은 로마서 5장과 8장에서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 또는 하나님의 승리가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적 삶속에서 이미 영적으로 성취된 사실을 강조하면서 종말은 이미 그리스도인의 삶속에 현존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임을 선언할 수 있으며, 환란과 핍박을 막연히 견디거나 종말의 축복을 막연히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미리 맛보고, 누리며 바랄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 종말론은 구원론과 같을 뿐 아니라 성령론과도 같다. 바울의 종말론, 구원론, 성령론은 그 예표(혹은 모형과 그림자)가 출애굽사건에 있다. 바울에게 있어서

홍해는 침례(세례), 광야는 교회(그리스도인들), 구름기둥은 성령님, 가나안땅은 기업(엡 1:14, 18)의 종말론적 예표들이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11절에서 “의롭다 하심,” “하나님과 화평,” “은혜에 들어감,” “하나님의 영광,” “환난 중에도 즐거워” 함, “환난은 인내를, 인내를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 함,”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심” 등을 기술하였는데, 히브리인들의 가나안입성에서 모형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침례 후 그리스도인들의 하늘 가나안입성을 위한 행군, 교회(신앙)생활에서 하늘 가나안입성을 바라보는 즐거움, 하늘 가나안입성을 위한 연단 등을 피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바울은 성도들의 교회(신앙)생활을 하늘 가나안입성을 위해 믿음을 단련하는 기간으로 보았다.

히브리 민족이 겪었던 출애굽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언약의 내용)하고, 침례(홍해도하) 받고, 교인(선민)이 되고, 죽어서(요단강 건너서) 천국(하늘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펼쳐는 천로역정(天路歷程)의 예표(豫表)요, 모형(模型)이며, 그림자이다. 히브리 민족이 겪었던 출애굽사건은 예수님 생애 마지막 한 주간과도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예수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의 대미를 장식했던 주요 사건들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종려주일사건이고, 둘째는 고난주간사건이며, 셋째는 부활주일사건이다. 이 세 가지 사건들은 출애굽사건들에서 그 모형들을 갖고 있다. 출애굽사건이 가나안입성에서 성취되었다면, 주님께서 입성하신 예루살렘은 그 가나안의 중심이요 수도였다.

예루살렘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 땅의 일시적인 예루살렘과 저 하늘에 영원한 예루살렘이 있다. 주님께서 종려주일에 입성하신 예루살렘은 히브리 민족이 홍해를 건너 후에 들어간 광야교회(옛 언약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이 침례 후에 입교한 교회(새 언약공동체)에 연관성을 갖는다.

주님의 종려주일사건은 갈릴리를 떠나와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이다. 이를 일컬어 ‘승리의 입성’(Triumphal Entry)이라고 부른다. 이 지상 예루살렘의 입성은 히브리 민족이 홍해를 건너 광야교회에 입성한 것과 같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한 후에 침례를 받아 거듭난(중생) 기쁨과 의롭다함(칭의)의 기쁨을 누리며 영적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지상나라인 교회에 입성한 것과 같다. 이런 맥락에서 정식으로 입교인이 되는 순간은 세상으로부터의 영광의 탈출이요, 승리의 입성이다. 이 기쁨을 묘사한 것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홍해해변에서 히브리 민족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가 목 놓아 외쳐 부른 승리의 노래, 모세의 노래요,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종려나무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를 연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출애굽기 15장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찬송이다.

2)마태복음에서의 현재종말

신약성경의 첫 책인 마태복음은, 마치 모세오경(토라)이 이스라엘이 지상 가나안 땅에서 언제 어떻게 왜 누구에 의해서 형성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듯이, 새천년시대로서의 교회천국이 언제 어떻게 왜 누구에 의해서 형성되었는가를 모세오경의 모형을 좇아서 설명하였다.

다섯 개의 설교 군(群)들이 대칭적으로 배열된 마태복음에서 13장에 기록된 8개의 천국비유는 복음서의 핵심이자 중심축이다. 이들 비유들은 천국(올람 하바)의 특징과 성격을 설명한다. 먼저 나오는 4개는 배 위에서 군중에게 하신 말씀이고, 뒤에 나오는 4개는 집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1-2절에서 갈릴리 호수는 세상을, 배는 교회를 상징한다.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는 아직 교회라는 구원의 방주에 오르지 아니한 상태, 즉 천국복음을 이제 겨우 듣는 단계를 말한다. 그들이 교회라는 배에 승선하려면, 먼저 천국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현 상황은 천국복음을 듣는 단계이다. 승선을 결정하기까지에는 아직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 번째 비유, 마태복음 13장 3-23절의 ‘씨앗을 받는 네 종류의 밭’은 어쩌면 승선 전(前) 4단계를 설명하려고 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는 예수님이 교회의 창설자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말씀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배는 천국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를 통해 배표를 받고 승선한 자들(좋은 땅)을 호수 건너편 새천년왕국 새 가나안 땅의 해변으로 실어 나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결단의 시간이다.

세상을 구성하는 “길 가,” “돌밭,” “가시떨기,” “가라지”(“악한 자의 아들들”)에도 불구하고, 비록 세상이 광야(사막)와 같을지라도, 종말시대인 현재의 교회시대가 완전무결하지 않고, 세상이란 밭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세상의 많은 부분을 마귀의 아들이들이 점령하고 있을지라도, “추수 때까지” 곧 “세상 끝”까지, 재림 때까지, 최후심판 때까지 혹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혼재하는 이 상황이 지속될지라도, 겨자씨 비유(교회의 외적 성장)와 누룩에 관한 비유(교회의 내적 성장)에서 보듯이, 비록 교회가 원수 마귀의 자식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고, 작은 겨자씨나 작은 덩어리의 누룩처럼 시작이 미약하지만, 창대하게 번성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 31-33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를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는 말씀은 현 세상을 종말론적인 천년시대로 보는 후천년설 또는 교회와 낙원을 종말론적인 천년시대로 보는 무천년설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3)누가문서들에서의 현재종말

바울의 동역자요 바울의 신학사상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었을 누가는 교회시대를 성령님의 시대로 이해하였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지속되어져가고 있음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설명하였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인을 이끌어 중생의 거듭남(칭의)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현재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곧 종말의 축복을 미리 앞당겨 맛보고 체험하게 하며,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나라에로 이끌어 구원(성화)에 이르게 한다고 믿었다.

누가는 또 성령님의 활동을 통해서 교회가 기대했던 임박한 종말의 기대를 종말의 역사화로 설명하였다. 성령님은 종말(재림)과 현재 사이에 교회시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임박한 종말신앙을 자연스럽게 현재적 종말신앙으로 바꾸어 놓았다. 임박한 종말신앙이란 현세를 비판하고 내세만을 기대하는 유대주의 묵시문학적 말세신앙 혹은 천천년설을 말하며, 현재종말신앙 혹은 후천년설 혹은 무천년설이란 재림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성령님을 통해서 약속, 인침, 보증 받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현세에서 미리 앞당겨 맛보고 체험하는 선취(先取, anticipation)를 말한다. 따라서 누가가 말하는 현재(영혼)구원은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미래구원에 대한 성령님의 약속, 인침, 보증, 선취를 뜻하였다.

누가는 복음서에서 복음의 대상을 유대인뿐 아니라, 온 인류에게로 확대시킨 것과 그 목적을 위해서 출범된 신약교회시대가 성령시대요, 하나님께는 영광(glory to God)과 사람에게는 평화(peace to men)가 확장되어지는 은혜시대 즉 미래종말의 희망과 지복이 지금 여기 역사현장에서 이미 시작된 것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누가의 높은 영성은 유대민족의 오랜 희망의 실현과 유대교와 유대민족사의 틀 속에 예수님의 사건들과 말씀들을 가두지 않고 더 넓은 이방세계를 향해 평화의 복음으로 지평을 넓힌데 있다. 우리가 봐야할 것이 바로 이 점이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평화의 복음은 로마인들의 귀에는 반역행위에 가까웠다. 로마제국의 명예와 합법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주장은 로마가 피스메이커(peacemaker)란 것이었다. 로마는 신성의 지배자 로마황제의 후원 아래 ‘로마의 평화’ (pax romana)를 유지하고 있었다. 신(神)이라고 주장하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공식 칭호들 가운데 하나는 ‘평화를 가져오는 자’였다. 로마군대는 이 평화를 이루고 보장하는 집단으로서 속주민들은 이를 고맙게 여기고 기꺼이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로마의 평화는 전쟁과 죽음과 착취와 탄압의 대가로 얻어지는 잠정적인 평화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예수님이 제시한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pax)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shalom)이었다. 이 샬롬은 하버드대의 하비 콕스 교수의 말대로, “황제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강제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써의 평화”였다.¹⁴⁾ 이 평화는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진하여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얻어진 참 평화였다.

누가가 복음서에서 강조한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최후승리와 영광이었다.

14) 하비 콕스, <예수 하버드에 오다>, 오강남 옮김(서울: 문예출판사, 2004), 199.

그래서 누가복음은 승리의 복음(Gospel for Triumph)이라 말할 수 있다. 이 승리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으시고, 천상 천하의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께서 친히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걷게 될 것을 암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가 배척당하여 죽음의 언덕에 오른 십자가의 길이었으나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걸었던 승리와 영광의 길이었음을 피력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생애 처음부터 고향사람들로부터, 사마리아인들로부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로부터 배척당하셨다는 점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점과 이 험한 길을 항상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극복하셨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누가복음 6-9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shalom)의 참 평화를 실현할 평화군(Peace Corps)의 조직, 강령, 훈련, 출정에 관한 것이고, 9장 51절부터 19장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한 행군(순례)의 시작과 예루살렘 입성(초기승리)까지이며, 20-24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수난과 최후승리(부활 승천)에 관한 내용이다. 사도행전에서 이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데, 특히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친 후 고린도를 출발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체포되고 재판받는 과정이 그러하다.

예수님의 평화군(平和軍)의 사명은 다름 아닌 암흑시대를 떠나보내고 광명시대를 활짝 여는 것이다. 이 평화군의 선봉장들의 이름이 베드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요한의 형제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매, 마태, 도마,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가롯 유다였다. 누가복음 6장 17절을 보면, 이들이 평지의 전장(戰場)에 내려와 도열하였는데, 대장이신 예수님이 맨 앞에 서섰고, 몇 걸음 뒤에 열 두 사도들이 도열하였으며, 또 몇 걸음 뒤에는 “그 제자의 많은 무리” 즉 예수님의 제자들의 큰 무리가 도열하였다.

이 평화군의 무장은 ‘기도하기’와 ‘성령충만’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물리쳐야 할 적군들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들이었다. 평화군의 대장령(大綱領)은 ‘인간사랑’으로써 15개의 강령이 소개되었다(눅 6:20-38).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평화군(Peace Corps) 임무는 인류에게 희년을 선포하고, 손을 내밀어 생명을 구하여 하나님나라를 세우는 복음사역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을 불러 평화군을 조직하셨으며, 강령을 선포하셨고, 임무를 설명하셨으며, 임무수행의 모범을 친히 보이시고 훈련시켜 파송하셨다. 누가복음 8장 1-3절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직전에 미션수행의 모범을 친히 보이시고 훈련하시는 모습을 보여준다. 누가복음 9장 1-6절의 파송은 6장의 평화군의 조직과 강령, 7장의 임무, 8장의 훈련에 이은 실습이다. 여기서 파송 받은 제자들은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이다. 하늘 예루살렘으로 오름의 행진을 시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어서 예수님은 일의 우선순위, 희년선포의 긴박성, 복음전도의 절박성과 역사 속에서 지속되어야 할 연속성을 강조하셨다. 그 최후는 승리요 영광이란 것이 누가의 핵심 메시지이다.

복음의 전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과정을 설

명한 사도행전도 후천년설적이다. 하나님의 나라 혹은 그리스도의 나라 곧 종말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데, 전반부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 고 하였고, 9장 31절에서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고 하였다. 사도행전 전반부에서의 주역은 베드로를 비롯한 히브리파 사도들인데,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였다. 이 전도의 추진동력(pushing power)은 배척, 환란, 사두개인들과 사울의 박해였다. 사도행전 8장 1절,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고 하였고,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라고 하였으며, 11장 19절, “그 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하였다.

누가는 또 후반부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였다.” 고 하였고, 16장 5절에서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고 하였으며, 19장 20절에서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고 하였고, 28장 31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고 하였다. 사도행전 후반부에서의 주역은 바울을 비롯한 헬라파 동역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전도하였다. 이 전도의 추진동력(pushing power) 역시 배척, 환란, 헬라파(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심한 박해였다. 전도자들은 이 박해로 인해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전후반부에서 드러난 사도들과 전도자들의 사역방법은 여행(순례 행진), 성령 충만, 기도였다. 누가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예표(혹은 모형과 그림자) 역시 출애굽사건이었다. 누가복음은 새 출애굽기에 해당되고, 사도행전은 새 여호수아서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은 다분히 후천년설적이거나 무천년설적이다.

4) 요한계시록의 현재종말론

요한 계시록은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묵시문학적 성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책이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요한 계시록의 성격을 예언서로만 간주하여 미래적으로 해석(Futurist Interpretation)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해석의 단점은 계시록이 갖는 현재적 혹은 영적인 의미를 간과한다는 데 있다.

요한 계시록은 구약성경과 이스라엘 민족의 창조주 하나님 신앙과 심한 역경 속에서도 승리를 이끌어낸 그들의 삶을 재해석하면서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승리를 환상(幻想)으로 보여 줌으로써, 악의 세력과 대항하여 싸우며,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위로를 주며, 박해로 인한 배교의 위협

과 신앙의 위기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끝까지 믿음의 정조를 지키도록 권면하고 있다. 따라서 계시록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사단의 세력과 싸워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다. 사단의 세력이 일시적으로 이기는 것 같지만, 싸움의 결국은 성도의 승리로 끝난다는 것이다.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고, 위기위탈의 순간에 있지만, 승리는 결국 그리스도인의 것이라고 말한다.¹⁵⁾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요한 계시록의 내용이 춘향전과 매우 비슷해서 묵시문학적 성격이 분명히 있지만, 현재종말론적인 성격도 함께 있다. 그래서 과거적, 미래적, 현재적, 영적, 문학적, 점진적 평행과 같은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했던 것이다.

계시록의 내용은 천상과 지상의 분리 또는 사건의 반복으로 전개된다. 도날드 거쓰리는 빅토리누스(Victorinus)가 최초로 반복이론(Recapitulation Theory)을 사용했다고 하고, 아우구스티누스(어거스틴)도 이 이론의 지지자였다고 적었다.¹⁶⁾ A. M. 헌터 역시도 ‘삽화의 원칙’ (principle of parenthesis)과 ‘이중 사건들’ (double happenings)이란 말로 반복과 분리를 말하면서 “마치 음악가가 두 개의 중후한 악장 사이에 가벼운 리듬의 악장을 도입하듯이 요한도 그의 심판 환상들이 거의 견딜 수 없게 될 때 지상의 고통의 장면에서 하늘의 축복으로 장면을 전환시킴으로써 긴장을 해소시키는 방법(삽화의 원칙)을 사용하고 있다.” 고 했고, “천상의 사건들 속에는 그와 대칭 되는 지상의 사건들(이중 사건들)이 있다” 고 했다.¹⁷⁾

실제로 계시록의 1장은 천상(인자), 2-3장은 지상(일곱 교회), 4-5장은 천상(보좌방), 6장은 지상(일곱 인), 7장은 천상(큰 무리), 8-9장은 지상 혹은 음부(일곱 나팔), 14-15장은 천상(큰 무리), 16장은 지상 혹은 음부(일곱 대접), 10-13장은 중간계시(교회와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3년 6개월), 17-18장은 중간계시(큰 성 바벨론과 음녀의 멸망), 19장은 천상(주의 재림), 20장은 지상(천년왕국), 21-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것이다. 일곱 나팔(삼분의 일 강도)과 일곱 대접(100퍼센트 강도)에서 보듯이, 뒤로 가면서 강도가 강해지고, 주의 재림과 동시에 최후심판과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전개된다.

계시록 이해의 핵심은 환난과 재앙이 다르다는 점이다. 환난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이고, 재앙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및 그들의 추종자들에게 내리시는 저주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대상이지 저주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이길 것을 권면하며, 불신자들과 박해자들에게는 회개를 권면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의 대상이기 때문에 재앙을 당한다. 계시록 이해의 또 다른 핵심은 시련은 짧고 영광은 길다는 점이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3년 6개월로 묘사되었고, 그 영광과 축복은 일천년으로 묘사되었다. 그리고 계시록은 히브리인들이

15) William Hendriksen, *More Than Conquerors: An Interpreta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5), 7-8.

16) Donald Guthrie, <요한 계시록의 신학>(The Relevance of John's Apocalypse). 정충하 역(새순출판사, 1989), 17-18, 26, 115.

17) A. M. Hunter, <신약성서개론>(Introducing the New Testament), 박창환 역(컨콜디아사, 1989), 240.

이집트를 탈출하여 고난 끝에 가나안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스토리와 천한 신분의 성춘향이 변 사또로부터 꺾박을 받지만 끝까지 정절을 지킨 후 이도령과 혼인하였다는 스토리와 오버랩이 된다.

계시록에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들을 보여주면서 인내와 끈질긴 믿음과 끝까지 이길 것을 권면하고, 다른 편에서는 그렇지 못한 자들이 당하는 무서운 저주와 재앙들을 보여주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경고한다는 점에서 계시록의 메시지는 현재종말론적이다. 계시록 1-18장의 사건들은 미래적이기보다는 현재적이고, 문자적이기보다는 영적이다. 천상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이든, 음부에서 저주를 받고 있는 불신자이든, 그 둘 중의 한 사람이 바로 현재의 나 혹은 당신 일수도 있고, 가까운 미래의 나 혹은 당신 일수도 있다.

5) 침례로 시작되는 현재종말

개개인의 현재종말은 침례/세례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교의 침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여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새 생명의 표지이다.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예로의 편입과 하나님과 그의 백성사이에 맺어진 새 계약예로의 유입을 뜻한다. 따라서 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에 동참한 자는 사죄함을 받고 새로 거듭나며,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탈출과 성별, 인종, 사회적 신분의 분단의 벽을 초월하는 새로운 인간성으로 회복된다.¹⁸⁾ 이러한 경험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동시에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치시고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미리 맛보게 하시며 그 나라를 완전하게 소유할 자로 보증하신다. 이런 뜻에서 기독교인의 종말은 침례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침례 안에서 이루어지는 종말은 영혼의 구원 혹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에 불과하며, 인간의 죄지를 본성은 육체와 함께 그대로 살아남는다. 사실 영적인 구원은 아직 완성에 이르지 못한 성화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침례 안에서 칭의 하심을 통하여 ‘이미’ 그리스도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성령께서 ‘아직’ 이루지 못한 성화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 바꾸어 말하면, 영혼구원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 안에 종말은 시작되었으며,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미래의 종말을 희망한다. 종말이 시작되었다 함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미래 종말과 함께 도래할 축복의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현세의 삶 속에 끌어내어 미리 경험하고 맛본다는 뜻이다. 이를 선취라고 말한다.

독일신학자 몰트만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과 기다림을 신학의 주제로 삼는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개인의 실존적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세계 전체와 관련된 우주적 사건이며, 침례를 통해서 예수

18) World Council of Churches,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Faith and Order Paper No. 111(WCC, Geneva, 1982), 3항; 조동호,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대전: 서진출판사, 1994), 134.

그리스도의 삶과 부활에 동참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미래가 앞당겨져 시작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이 미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여전히 그것은 미래에 완성될 약속으로써 세계사의 목표로서 남아 있다. 따라서 침례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과 기다림을 갖게 된 성도들은 구체적인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었고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 개인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종 자연 모든 영역에서 추구하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현실이 어둡고 암담하지만, 이 세계 속에서 완성될 그 날을 희망한다. 이 희망은 피안의 세계에 대한 희망만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즉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이다.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약속에 동참한 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역군이며, 하나님의 세계를 지향하여 그 자신을 언제나 새롭게 변화시키고 개혁시켜 나가는 백성이다.¹⁹⁾

범 우주적인 미래종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된다. 이때에 모든 육체는 신령한 몸으로 변하고, 죽은 영혼들이 부활하게 된다. 그리고 자연 만물은 회복이 되어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절한 낙원이 된다. 다시는 눈물이나 슬픔이 없고, 고통이나 수고가 없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영원한 지복이 이루어 질 것이다. 성경은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진다고 가르친다. 이 미래종말은 모든 믿는 이들의 희망이요, 현세의 삶 속에서 행복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근원이 된다.

4. 역사 속에서의 후천년설

그리스도교는 주후 313년까지 불법종교였다. 게다가 자칭 신(神)의 아들이자, 신과 주(Deo et Domino)요, 왕(王)들의 왕이며(참고: 라 7:12, 단 8:25), 주(主)들의 주였던 로마의 황제들은 로마의 신들에게 충실하고자 10여 차례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을 전국적으로 탄압하였다. 네로의 그리스도교 박해는 로마에 국한된 것이었다. 주후 212년에 발효된 카라칼라의 안토니누스 칙령이후 모든 속주민도 로마시민권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황제 데키우스(Decius, 250-251)는 로마전국 일천주년이 2년 지난 250년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명기한 ‘리벨루스’(libellus)라 불린 증명서를 누구나 소지하도록 칙령을 내렸다. 그렇지만 그는 일 년 후인 251년에 고트족과의 전투에서 습지대에 갇혀 혼전을 벌이다가 아들과 함께 전사하였고, 시신은 수렁에 가라앉아 찾지도 못하였다. 둘째 아들도 동년에 전염병으로 병사하였다. 데키우스와 그의 두 아들이 다 죽자, 252년 한 해 동안에 황제가 세 사람이나 출몰하였다가 253년에 발레리아누스(Valerianus, 253-260)가 황제에 오른 후 그도 역시 제국의 시민들에게 ‘리벨루스’를 발부받아 항상 소지하게 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하였다. 그러나 그는 260년에 7만 대군을 이끌고 페르시아 왕 샤푸르1세와 맞붙어 싸우다가 포로로 잡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

19) 김균진, <해결철학과 현대신학>(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213-250.

하였다. 그리고 열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303년에 교회 탄압을 위한 칙령을 공포하고 사악한 박해자의 칼을 치켜들었다. 그러나 박해의 기간들은 대체로 3년 6개월을 넘기지 못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그리스도교는 겨자씨나 무처럼 외적으로 쑥쑥 성장하였고, 내적으로는 누룩과 같은 힘을 가지고 민중들 사이를 파고들었다.

주후 30년 5월 28일 오순절 날 오전기도시간 무렵에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창립되고 나서 신약성경의 글들이 기록되기까지는 임박한 주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컸었다. 신약성경의 여러 글에서 드러난 현재종말론은 부분적으로는 지연된 재림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기도 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교회시대 곧 성령님이 강력히 이끄시는 영적인 천년왕국(성령시대)이 역사에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이고, 후천년설 또는 무천년설이란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신학적으로 후천년설은 그리스도교가 로마제국의 국교(392년)가 된 때에 아우구스티누스(어거스틴)와 티코니우스(Tyconius) 등이 주장하여 비잔틴시대를 지배했다가 계몽시대이후 선교 붐과 함께 다시 득세하였다. 신구약중간기였던 헬라시대와 신약시대였던 로마시대에는 황제나 왕이 짐승(우상)이자 적그리스도였다. 그 이유는 그들이 박해자들이었을 뿐 아니라, ‘신(神)과 주(主)’ (Deo et Domino) 혹은 ‘주와 하나님’ (Dominus et Deus)이라고 스스로를 주장하며 신전을 세워 제사와 분향까지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후 313년 6월 로마의 두 황제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가 공포한 밀라노칙령(Edict of Milan)으로 그리스도교는 합법종교가 되었고, 그로부터 80여년 후인 392년부터 그리스도교는 로마제국의 유일한 종교로 남게 되었다. 콘스탄티누스와 그 이후의 황제들은 주화에 그리스도의 첫 두 글자인 ‘키로’ (XP)와 십자가를 즐겨 새겨 넣었고, 그 이후 비잔틴시대의 황제들은 주화에 십자가 문양을 화려하게 새겨 넣었으며, 10-11세기에 이르러서는 주화 전면에 복음서를 가슴에 품고 계신 예수님의 상반신을 새겼고, 두상 배후에 십자가 후광을, 좌우 어깨 위쪽에 예수 그리스도(IC XC)라고 새겼으며, 뒷면에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IhSUS XRISTUS bASILEU BASILE) 혹은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 (IC XC NIKA)라고 즐겨 새겨 넣었다. 이런 상황에서 황제는 더 이상 짐승(우상)이나 적그리스도일 수가 없었다.

그리고 12세기 후반기에 다시 전천년설이 등장하였는데, 플로라의 요아킴(Joachim of Flore, 1132-1202)으로부터 종교개혁시대에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간주하게 되었다. 단적인 사례가 1522년에 출판된 루터의 신약성경 계시록 17장에 삽입된 삽화이다. 이 그림은 나무에 새겨 활자들 틈에 삽입하여 인쇄 후 색을 덧입힌 것으로써 공방(Cranach, Lucas the Elder)에서 만든 계시록의 삽화들 가운데 하나이다.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을 탄 큰 성 바벨론의 큰 음녀의 머리에 삼중관을 씌움으로써 음녀가 가톨릭 교황이라는 점을 암시하였다. 삼중관(Papal Tiara)은 교황이 머리에 쓰는 관으로써 꼭대기에 보석으로 장식한 십자가를 세우고, 상층에 ‘VICARIUS’ (대리자), 중층에 ‘FILII’ (아들의), 하층에 ‘DEI’ (하나님의)라고 새겨 넣거나 혹은 상층

에 ‘CHRISTI VICARIO’ (그리스도의 대리자), 중층에 ‘IN TERRA’ (지상에서), 하층에 ‘REGVM’ (왕들의)이라고 새겨 넣은 화려한 전례용 관(liturgical hat)을 말한다.

이후 다시 후천년설이 득세하였는데, 그 이유는 계몽주의 곧 사회의 계몽과 발전, 개혁과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자유와 실용과 개척정신에 바탕을 둔 후천년설적 낙관주의가 미연방 국가의 건설에도 맞물려 있었다. 이 시기에 출발한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정신도 초기에는 당연히 낙관적 후천년설이었다. 그러다가 남북전쟁,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그 사이에 있었던 경제대공황 등의 영향으로 낙관주의는 점차 약해지고 염세적 전천년설이 등장하였고, 특히 시온운동과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건국선언이후 시대구분(세대주의) 전천년설이 각광을 받았으며, 후천년설과 전천년설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무천년설이다. 무천년설은 천년설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실현된 그리스도의 나라 곧 실현된 천년설(realized millennialism)을 믿는다는 뜻이다. 무천년설도 후천년설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실현된 종말 곧 현재구원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무천년설에서는 현 세상을 천년왕국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 대신에 지상의 교회들과 천상의 낙원만을 천년왕국으로 간주한다.

5. 스톤-캠벨운동권에서의 종말론

미국에서 환원운동(신약성경교회 회복운동) 곧 스톤-캠벨운동이 시작된 18세기말부터 미국의 분위기는 낙관적 후천년설적이었고, 개척정신과 자유와 실용정신이 지배적이었다.

제자들 교회(Disciples of Christ) 학자 웨인 헨슬리(Wayne Hensley)가 “스톤-캠벨운동이 후천년설의 수사적 성격과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을 정도로 후천년설은 스톤-캠벨운동의 큰 흐름 가운데 하나였다. 또 헨슬리는 전통적인 후천년설의 설명에는 세 가지 주요 단계가 있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천년왕국의 도래를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세계를 복음화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가 초기(교회)의 일치를 회복할 때까지는 세계 복음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신약성경에서 발견되는 옛 복음과 옛 질서의 회복이 일치의 근거라는 것이라고 하였다. 환원이 후천년설 설명의 기초였던 것이다. 도시영향을 거부한 미국의 시골문화를 고려할 때, 환원운동권의 후천년설은 개인의 자유, 인간의 평등, 신(神)이 정한 미국의 운명에 대한 미국의 신념에 잘 맞아 떨어졌고, 설득력이 컸다.²⁰⁾ 후천년설론자들은 미연방국가의 출범을 종교개혁의 완성을 향한 큰 걸음과 그리스도께서 영과 진리로 통치하실 새천년의 출범으로 본 경향이 있다.²¹⁾ 게다가

20) Michael W. Casey, Douglas Allen Foster, ed., *The Stone-Campbell Movement: An International Religious Tradition*(Knoxville: The University of Tennessee Press, 2002), 18-19.

21) Dan G. Danner, "The Millennium in the Restoration Movement," *Leaven*: Vol. 7 : Iss. 4, Article 6(Pepperdine University, 1999), 189-90.
<https://digitalcommons.pepperdine.edu/leaven/vol7/iss4/6>.

초기 환원운동가들과 구성원들은 환원운동에 대한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충만했었다.

1달러 지폐에 실린 미합중국의 우측 국장에 흰머리수리가 부리에 “다수로부터 하나로”(E pluribus unum)라고 쓴 두루마리를 물고 있다. 또 좌측 국장 중앙에 황무지에 건설 중인 피라미드와 그 위에 섭리의 눈이 있고, 하단에 미국 독립선언의 해인 “1776”이란 숫자가 라틴어 문자 “MDCCLXXVI”로 새겨져 있다. 국장은 통일, 자유, 독립, 개척정신의 상징으로써 1782년에 제정되었다. 국부들은 낙관적 후천년설의 입장에서 1776년 13개 주를 통일하여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미합중국을 건설하였고, 하나님께서 자국민들이 하는 일들을 ‘섭리의 눈’으로 보살펴 주시고 (ANNUIT COEPTIS: favorable to our undertakings), ‘새 천년시대의 새 질서’(Novus Ordo Seclorum: New Order of Ages)를 열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18-19세기 미국의 성공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성공도 이 같은 통일, 자유, 독립, 개척정신과 ‘새 천년시대의 선구자’라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환원운동가들은 두 가지 확신을 갖고 있었다. 첫째,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미완으로 끝난 16세기의 종교개혁을 완성시키시려고 환원(신약성경교회)운동을 전령(Christian Messenger)으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둘째, 그들은 이 확신 속에서 새천년시대의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를 자임하면서 그리스도교 일치운동과 신약성경(사도전통)교회 회복운동(Restoration Movement of the New Testament Ancient Order of Things)을 낙관적 후천년설의 입장에서 펼쳤다.

알렉산더 캠벨과 발톤 스톤은 환원운동이 새천년왕국을 이 땅에 개방하는 사역이라고 보았다. 캠벨이 자신의 정기간행물의 제호를 <천년왕국의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로 정한 이유가 19세기의 환원운동의 완성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후천년설에 둔 때문이었다면, 스톤이 자신의 정기간행물의 제호를 <크리스천 메신저>(Christian Messenger)로 정한 이유는 19세기의 환원운동의 완성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전천년설에 둔 때문이었다.

한편 애브너 존스와 함께 ‘그리스도인 연맹’(Christian Connexion)을 설립한 엘리야스 스미스(Elias Smith)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다스릴 임박한 통치를 전망하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였다. “스톤은 역사적 전천년설을 신봉(信奉)하였지만, 후천년설 주창자들처럼 그리스도인 일치와 노예제도 폐지가 이뤄지는 때가 종말이 임박한 때라 여겼다”(he considered the nearness of the end an incentive and summons to accomplish christian unity and abolish slavery).²²⁾ 전천년설이 대세였던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에서는 발톤 W. 스톤과 ‘새 빛’(Newlight) 그리스도인들의 “묵시적 정서”(apocalyptic spirit)에서 자신들의 뿌리를 찾고자 하였다.²³⁾

22) Hans Rollmann, "Eschatology," *The Encyclopedia of the Stone-Campbell Movement*, ed. Douglas A. Foster, Paul M. Blowers, Anthony L. Dunnivant and D. Newell Williams(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4), 304.

23) Hans Rollmann, "Eschatology," 306-7.

스톤은 적어도 1830년대 이후로부터는 전천년설론자였다. 스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선행조건으로 두 가지 곧 “유대인들의 돌아옴(회개)과 구원”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옴”을 믿었다. 천년왕국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스톤은 자신이 소유한 노예들을 해방시켰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노예들을 해방하라고 호소하였다. 또 스톤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치가 천년왕국이 도래하는 시점이라고 보았다. 스톤은 하나님께서 19세기에 교회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환원운동을 도구로 쓰시고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확신하였다.²⁴⁾

알렉산더 캠벨은 <천년왕국의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의 발간호(1830년 1월 4일)에서 “‘재림’을 ‘그리스도교 성경에 제시된 궁극적인 사회 개선의 완성’으로 정의함으로써 자신의 후천년설을 피력하였다.” 후천년설은 캠벨에게 환원운동이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낙관하도록 영향을 끼쳤다. 특히 후천년설은 캠벨에게 “옛 복음”(사도전승 혹은 신약성경의 복음)이 “온 인류”를 개종시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의 동일한 초석(礎石) 위에 통합시키는 도구라는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해주었다.²⁵⁾ “캠벨의 ‘후천년설적 교회’는 사도전통 곧 ‘일들의 옛 질서’(Ancient Order of Things)의 회복 곧 초기 그리스도교의 의식들(침례, 주의 만찬), 관행들, 믿음의 회복에 기초하였다.”²⁶⁾ “알렉산더 캠벨이 1830년 1월에 시작된 그의 두 번째 저널의 이름을 <천년왕국의 선구자>로 붙인 것은 미공화국과 자신의 종교개혁이 점차 성공하는데 따른 낙관론에서 비롯되었다. 발간호의 ‘취지서’(Prospectus)에서 캠벨은 노예제도의 폐지를 향한 움직임을 포함하여 천년기에 가장 주목해야 할 분야를 약속하였다.”²⁷⁾

전천년설과 윌리엄 밀러(William Miller)의 휴거날짜 지정의 여파로 1830년대와 1840년대에 스톤-캠벨운동권에도 종말론 논쟁이 일어났다. 이 논쟁은 스톤-캠벨운동권 내에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들에서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 논쟁은 알렉산더 캠벨에게는 자신의 후천년설을 전천년설의 대안으로 발전시키고 공론화할 기회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발행하는 <천년왕국의 선구자>지에 “그리스도교(개신교)의 견해(view)”로 후천년설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캠벨의 동료인 월터 스코트(Walter Scott(1796-1861)는, 비록 그가 그리스도의 재림날짜를 확정짓는 것을 꺼리기는 했지만, 당시에 미국과 영국의 일부 편집자들이 밀러파(Millerite)의 운동을 지지했던 것처럼 그도 자신의 정기간행물인 <복음전도자>(The Evangelist)지를 통해서 그들을 지지하였다.²⁸⁾

‘다섯 손가락 시연’(five-finger exercise)의 복음전도자로 유명세를 탄 월터 스

24) D. Newell Williams, "Stone, Barton Warren(1772-1844)," *The Encyclopedia of the Stone-Campbell Movement*, op. cit., 717-18.

25) Alexander Campbell, "Prospectus," *Millennial Harbinger* 1(4 January 1830): 1. 58; Dan G. Danner, "The Millennium in the Restoration Movement," 189.

26) Hans Rollmann, "Eschatology," 304.

27) Hans Rollmann, "Eschatology," 305.

28) Hans Rollmann, "Eschatology," 305.

코트는 전천년설과 윌리엄 밀러(William Miller)의 휴거설을 지지함으로써 캠벨과 갈등을 겪었다. 스코트는 스톤-캠벨운동에 “그리스도인들”(Christians)이란 이름을 쓸 것인지, “제자들”(Disciples)이란 이름을 사용할 것인지를 놓고 대립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스코트는 캠벨이 자신을 환원운동권내에서 2등 시민처럼 대우하고 있으며, 옛 복음(사도적 전통)을 회복하는 일에 끼친 자신의 역할이 적절히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심지어 스코트는 밀러의 전천년설을 지지하면서 동료 제자들에게 1842년 10월에 “그들이 예언의 말씀에 무지하다”며 꾸짖었다. 그러자 캠벨은 1843년 1월에 “지성과 영향력이 남다른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몇 사람이 밀러의 사색에 빨려들었다”고 탄식하였다. 밀러의 휴거설에 대한 1차 예언(1843년 3월 21일)과 2차 예언(1844년 10월 22일)이 모두 빗나가자, 윌터 스코트는 캠벨보다 한층 더 후천년설의 지지자가 되었다.²⁹⁾

로버트 밀리건(Robert Milligan, 1814-1875)은 후천년설을 취했다. 미국그리스도인 선교회(America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가 예루살렘으로 파송한 스톤-캠벨운동권의 첫 번째 선교사인 제임스 바클레이(James T. Barclay, 1807-1940)는 후천년설에서 출발했지만 성지에서 고난을 견디며 점차 전천년설로 견해가 바꿨다. 그는 결국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이 그리스도의 재림보다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³⁰⁾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의 편집자들과 교육자들은 전천년설을 주장하였다. 모세스(모세) 라드(Moses E. Lard, 1818-1880), 존 토마스(John Thomas, 1805-1871), 아서 크라이필드(Arthur Criehtfield, ?-1852), 톨버트 패닝(Tolbert Fanning, 1810-1874), 토마스 브렌츠(Thomas Wesley Brents, 1823-1905), 제임스 하딩(James A. Harding, 1848-1922), 데니얼 쉘머(Daniel Sommer, 1850-1940) 등이 전천년설을 취했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전천년설은 R. H. 볼(Robert Henry Boll)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다. 볼은 1930년대에 시작해서 1940년대에 절정에 이른 전천년설 운동의 선두주자였고 시대구분론자였다. 20-21세기 기간에 영향력이 막강한 맥스 루카도(Max Lucado)로 인해서, 그의 책,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최상의 시작>(When Christ Comes: The Beginning of the Very Best, 1999)이 보여주듯이, 무천년설이 그리스도의 교회들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맥스의 책들은 100여권이 넘게 우리말로 출판되어 시판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Churches of Christ)과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이 복음주의 시대구분 전천년설(세대주의)의 대중적 호소에 의해 점점 더 영향을 받고 있다. 리처드 휴즈(Richard T. Hughes)에 의하면, 남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지속되고 있는 “묵시적인” 반(反)문화정서가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1906년 제자들 교회와 결정적으로 분리된 한 요인이었다.³¹⁾

29) Mark G. Toulouse, "Scott, Walter(1796-1861)," *The Encyclopedia of the Stone-Campbell Movement*, op. cit., 677-78.

30) *The Stone-Campbell Movement: An International Religious Tradition*, 19-20.

31) Hans Rollmann, "Eschatology," 306; *The Stone-Campbell Movement: An International*

오리건주 포틀랜드 대학교에서 지난 31년간 교회사, 종교, 문화를 가르쳤던 댄 G. 대너(Dan G. Danner) 교수는 “환원전통이 무천년설로 정착하는 것처럼 보였다.” 고 하였다. 또 그는 “아주 예리한 것은 아니지만, 아테네 클레이 풀리아스(Athens Clay Pullias)는 천년기에 관한 학술강의에서 환원주의자의 무천년설의 큰 흐름을 대변하였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분의 왕국은 세워졌고 현재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며, 언젠가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려 다시 오실 것이며, 성취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성취를 기다리고 있다고 데이비드 립스콤(David Lipscomb, 1831-1917)³²⁾ 교장이 확인했다.” 고 하였다.³³⁾

그리스도인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에서는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모두 발견된다. 제자들 교회(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에서는 후천년설이 20세기까지 이어져왔다.³⁴⁾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신학대학의 학술 집회에서 처음 접한 것이 시대구분 전천년설이었고, 오하이오의 한 신학대학원에서 새로 접한 것은 무천년설이었다. 필자 또한 수십 년간 무천년설을 지지해왔으나 후천년설의 중요성에도 눈을 뜨고 있다.

제자들 교회의 주석들에서는 유진 보링(M. Eugene Boring)이 1989년에 출판한 학술적인 주석이 나오기까지 20세기 동안 계시록이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제자들 교회의 유력한 인사들 중에는, ‘그리스도인 행동’ (Christian Action)을 이끌었던 킨드레드(C. G. Kindred, 1866-1954) 같은 몇몇 보수적인 인사들 말고는, 전천년설을 주장한 사람이 없었다.³⁵⁾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이 배도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후천년설적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아닐까싶다. 또 현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천년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일군으로 전령으로 또는 선구자로 부르셨고, 그 귀한 사역을 위해 세상에 보내셨으며, 나의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섭리의 눈으로 보살피 주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 충만, 끈질긴 기도, 인내의 믿음으로 뚜벅뚜벅, 마치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혹은 하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행군했듯이, 전진해 나가는 것이다.

Religious Tradition, 19-20; Dan G. Danner, "The Millennium in the Restoration Movement," 191-92.

32) 내슈빌 성경학교(현 Lipscomb University)의 설립자. 1906년에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제자들 교회에서 분리시킨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33) Dan G. Danner, "The Millennium in the Restoration Movement," 192-93.

34) *The Stone-Campbell Movement: An International Religious Tradition*, 20.

35) Hans Rollmann, "Eschatology," 306.